

## 세대별 가치관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임 경 복 · 임 숙 자 · 조 진 숙

이화여대 가정과학대학 의류직물학과

### A Study on Value and Clothing Behavior by Generation

Kyung Bock Lim · Sook Ja Lim · Jin Sook Jo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Ewha Woman's University  
(1995. 3. 14 접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 of value and clothing behavior by generation, and to suggest a device for family concord by overcoming a generation gap.

Data was obtained from 106 families(daughter, mother, and grandmother in one family), of which the daughter was attending Ewha Womans University. And it was analyzed by ANOVA, Duncan-test,  $x^2$ -test, ANCOVA ant two-way ANOV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Each generation showed different values. Mother and grandmother perceived greater importance for each value except political value.

2. Each generation has its own clothing behavior characteristics.

Style, silhouette, skirt length, and neckline preferences were different by generations. In general, mothers and grandmothers showed similar characteristics.

Wearing size and subjective feeling for suitability were also different by generation.

Finally in consumption behavior, preferred clothing price and expenditure were also differed by generation.

#### I. 서 론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회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 사람들은 가치관의 부재라든가 혼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보다 근본

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가정 내지는 가족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가치관이라는 것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일단 가치관을 형성시키고 나면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므로 개인의 가치관을 파악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예측하게 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화여자 대학교의 1994년도 제 1기분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가치관이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할 때 이는 의복행동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 가시성이 높아 대인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의복이므로 이는 매우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의복을 도구로 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동시에 의복을 타인 평가 및 판단의 도구로 이용하기도 하므로 의복에는 개인의 가치관이 잘 반영될 것임을 유추케 한다. 이 경우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세대간에는 가치관은 물론이고 신체적 심리적 특성에 따라 의복행동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세대간의 의복행동에 대한 관심과 차이는 서로 다른 주변환경의 영향 속에서 살아온 세대에게는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일정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를 밝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세대별로 가치관이 다르고, 의복행동이 다르다면 이 차이를 밝히고 이를 각 세대에게 제시하므로써 경우에 따라 가정내 세대간의 갈등의 소지가 될 의복행동에 대해 밝혀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세대별로 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본다.
- (2) 세대별로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본다.
- (3) 세대와 의복행동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본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가치관

가치관의 개념은 원래 인류학자들이 발전시키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가치관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인류가 살아가면서 만드는 정신적 물질적 발전상이 문화라고 할 때, 문화의 중심에 가치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중요성과 함께 계속적 변화가 전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치관은 정의하자면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규정하는 가장 총괄적 개념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자극과 반응을 증대하는 매개변인이라고 하였다<sup>1)</sup>. 또한 여러 행동 중에서 선택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라는 정의도 있다<sup>2)</sup>. 그 외에도 가치관에 대한 정의로는 문화적 산물이지만 개인의 학습을 통해 내면화되어 동기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며, 둘째 개인의 심리적 체계에 내면화되어 동기에 작용하고 있으나 눈으로 볼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셋째, 개인의 행동을 구속하는 평가적 기준과 이념이며, 넷째, 개념 내지 신념은 개인의 심리적 조건을 체계화하여 행동의 통일을 가지게하고 사회적 통합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sup>3)</sup>라고도 하였다.

결국 가치관이란 사람들이 행동하고 판단을 내리는데 직접적 동기가 되는 강한 힘이지만 추상적인 것이며, 각자가 속한 사회의 문화, 관습, 환경, 가족, 친구, 교육, 경험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 일단 가치관이 형성되면 궁극적 차원에서 생활양식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경험과 학습으로부터 가치관이 형성된다고 볼 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은 가정이 담당하게 된다. 그래서 가족가치관 내지는 가정가치관이 존재한다. 이는 가족 구성원간에 일치되는 행동이나 목표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힘으로 시대나 환경에 따라 변화된다<sup>4)</sup>. 그러나 현대와 같이 개성이 존중되고 자녀위주의 교육체제로 나갈 경우 세대간에서는 가정가치관보다 더 큰 힘으로 세대간의 갈등을 경험할 것이다. 이 때 세대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광범위한 연령집단이나 동시집단으로 생의 주기 발달단계에서 수준이 비슷한 사람을 일컫는다<sup>5)</sup>. 각 세대의 단위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학자별로 차이가 있다. Erikson<sup>6)</sup>은 성인초기와 성인기로 구분하여 성인초기는 20세에서 40세까지, 40~50세까지를 성인기로 보았다. 또 김중서는 개인의 지적, 정리적, 사회적, 신체적 영역에 근거하여 25세에서 35세까지를 성인전기로 보고 35~60세까지를 성인후기로 보았다<sup>7)</sup>. 그 외에 이은영은 20~40세까지를 청년기, 40~60세까지를 중년기, 60세 이상을 노년기로 구분하고 있다<sup>8)</sup>. 어떤 방법으로 구분하든 비슷한 사고를 가지는 것이 동일한 세대라고 본다면 세대의 차이가 날 때에는 젊은 세대는 독특한 개성을 내세우고 가치관을 창조하려 하는 반면 노인 세대는 전통적 가치관을 전수시키려 한다<sup>9)</sup>. 이는 결국 사회적 지위나 권위뿐 아니라 사상, 가치 등으로도 넘어설 수 없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sup>10)</sup>. 따라서 동일 가족 내에서도 세대가 다르면 세대차이는 필연적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강요하기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2. 세대별 의복행동

의복은 현대와 같은 대중사회에서 쉽게 타인이 성격, 태도, 가치관을 판단하게 해주는 척도이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의복을 선택하게 되는데 세대별로 가지는 신체적, 심리적 특성에 따른 경우일 때 보다 큰 차이로 발전된다.

우선 세대별로 심리적 특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의복행동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청년기의 경우 의복에 대한 관심이 커지므로 의복을 통해 의복만족감, 혹은 의복 불안감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과도기에 겪는 심리적 불안감을 의복으로 해결하려 한다. 따라서 의복이 가진 많은 속성 중 사회적 인정을 가장 중요시하게 되며 유행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중년기가 되면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자기개발의 한 분야로 많은 시간과 금전을 의복에 투자하게 된다<sup>11)</sup>. 중년층의 의복비 규모가 비교적 다른 세대에 비해 크다는 사실은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뒷받침하고 있다<sup>12-14)</sup>. 또한 이들은 이미 가치관이 정립된 상태이므로 동조성보다 개성을 추구하는 의복행동을 하며, 타인의 평가보다 자신의 평가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유행에 대한 관심보다는 보수적 스타일이면서도 오래 입을 수 있고, 질이 좋은 스타일을 선호한다<sup>15)</sup>.

노년층의 의복행동 특성에 있어 정희용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여성은 의복의 안락감에 가장 큰 관심을 두지만 그 다음으로는 외모에 관심을 두고, 그 다음으로는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에 관심이 있다<sup>16)</sup>. 또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강도는 약하지만 사회활동을 하는 노인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 의복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7)</sup>.

이상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각 세대별로 자신이 처하고 있는 연령대에 따라 상황별로 특정한 심리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의복선택에 반영된다.

다음으로는 세대별 신체적 특성에 따른 의복행동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의복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연령에 따라 체형이 변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성인여성의 체형은 생리적으로 인체의 지방질이 허리와 엉덩이로 축적됨에 따라 신체 윤곽이 한층 굵고 짧아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결혼 후 출산을 거쳐

현저히 증대된다<sup>18)</sup>. 이런 변화는 대개 30대에 서서히 시작되어 40대에 두드러지다가 노년층이 되면서 더욱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중년층 이후에는 청년기와 달리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체형이 변화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의복이 필요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런 체형의 변화는 착용하는 치수의 변화와 더불어 의복의 맞음새에 대한 반응까지도 변화시킬 것이다.

청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선호하는 디자인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 때 연구가 행해진 시기에 따라 선호하는 스타일의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이들이 유행에 그만큼 민감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미경의 연구에서 20대는 스포티한 스타일을 선호하였다<sup>19)</sup>. 윤희숙의 연구에서는 아우어 글래스형이었다<sup>20)</sup>. 반면 최승희의 연구에서는 스포티한 스타일과 박스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1)</sup>. 이런 결과는 청년기의 경우 체형에 만족하므로 유행 스타일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이다.

중년기 여성은 허리와 엉덩이 둘레 같은 둘레 부위가 잘 맞지 않으며 허리와 복부에 가해지는 압박감으로 신체 결점을 카바하기 어려워진다<sup>22)</sup>. 따라서 신체에 잘 맞도록 여유분이 있으면서 압박이 적합한 의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년은 길이와 높이 항목이 감소하고, 둘레 항목이 커지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중년층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청년층에 비해 일관성이 있어서 폭신적이고 드레시한 스타일이 중년층에서 인기가 있으며, 대개 A-line을 선호하였다<sup>23)</sup>.

노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조금 여유가 있거나 넉넉한 스타일의 의복을 선호하였고, 상의에서는 소매길이가 길다는 사실을 가장 불만스러워 했고 다음이 가슴 폭이 좁다는 점이었다. 또한 하의에서는 허리 둘레는 적고 옷길이는 길다는 점에 대해 가장 불만을 표시했다<sup>24)</sup>. 또한 노년층은 의복을 구매하는 경우 맞음새를 가장 문제시했고 다음에는 색이나 모양을 문제라고 하였다<sup>25)</sup>. 이렇게 볼 때 노년층의 의복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 개발의지가 필요함을 추측케 한다. 노년층의 경우 신체적 아름다움이 감소되므로 외모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보다는 결점 보완의 수단으로 의복이 사용된다<sup>26)</sup>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노년층이 선호하는 스타일은 A-line이 실루엣으로 너무 몸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스커

트 유형에서는 A-line의 플리츠 스커트를 선호하며 길이는 미디를 선호하였다<sup>27)</sup>.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세대별 심리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특성 역시 각 세대가 선호하는 의복행동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 가치관과 의복행동

가치관은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는 의복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가치관과 의복의 관계를 처음으로 연구한 사람은 Newman, Nickerson, Bryer였다<sup>28)</sup>. 그 후의 연구에서 Creekmore는 가치지향성 및 욕구와 의복행동을 연결시켜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경제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편리성에 관심이 많았고 정치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유행성과 사회계층 상징성에 관심이 많았다. 또 심미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옷의 외양에 관심이 많았으며, 사회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편안함에 관심이 많았고, 종교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정숙성에 관심이 많았다. 또한 탐험적 가치관이 높은 경우 의복의 실험성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다<sup>29)</sup>. 또한 안정자의 연구에서는 가치관과 의복색의 선호도를 연결시키고 있다<sup>30)</sup>. 서울시내 여대생의 의복 착용 동기와 가치관을 연구한 결과 착용 동기 중 장식성과 파시성은 사회적 가치관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sup>31)</sup>.

##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 1.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사용한 설문지는 다섯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우선 가치관에 대한 문항, 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문항, 구성측면의 문항, 의복비 지출에 대한 문항,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한 문항으로 나뉘어져 있다.

우선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가정 문제가 보다 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선정하기 위하여 황용연의 가치관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가 여섯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가치관별로 세 문항씩 모두 18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여섯개의 가치관영역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관: 개인적이 아닌 이타적이고 동정

적인 타인지향성

- 2) 정치적 가치관: 정치적 문제에 대한 관심 및 가치 부여
- 3) 경제적 가치관: 금전적인 측면에 대한 가치부여와 실질성 추구
- 4) 가정적 가치관: 가정의 화목과 가족 구성원 역할에 대한 가치부여
- 5) 도덕적 가치관: 전통적 윤리에 대한 신뢰
- 6) 종교적 가치관: 신에 대한 믿음과 내세에 대한 기원

다음으로는 디자인 선호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이를 포함시킨 이유는 디자인 선택에는 각 세대가 가진 신체적, 심리적 특징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 문항에는 스타일의 삽화가 제시되었다. 삽화를 선정하기에 앞서 네개의 기준축을 선정하였는데, 이 축은 각 세대별 의복 스타일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도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명칭을 부여하였다. 이렇게 선택된 축의 명칭은 보수적/클래식, 패서너블/트렌디, 엘레гант/페미닌, 캐주얼/스포티 네개였다. 다음에 각각의 축에 대해 세계적 대표적 스타일을 선정하였는데 이를 위해 1994년 3월에서 5월까지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잡지와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잡지를 네종류씩 선정하여 제시된 스타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스타일을 대학원생들에게 선정하도록 하브로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실루엣에 대한 문항은 앞서 선택된 기준축별로 각각 한 스타일을 선택하여 이를 A, H, X라인으로 변형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에는 선호하는 스커트 길이에 대하여 타이트, 플리츠, 플레어와 개더 스커트의 네 종류를 각각 미니, 미디, 내츄럴, 맥시로 변형시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디테일 중 네크라인은 라운드, 브이, 스퀘어, 유 네크라인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문항에 대해서는 가장 선호하는 것을 한 가지씩 선택하도록 하였다.

다음에는 세대별 신체적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의복 구성측면에서 현재 착용하고 있는 상의, 하의 호수를 제시하기 위해 기성복으로 생산되는 모든 종류의 치수가 제시되었다. 또한 상의 중 대표적인 다섯부위, 하의 중 대표적인 다섯부위에 대한 맞춤새의 정도를 질문하였는데 맞춤새의 정도에 대해서는 5점척도로 자신의 느낌을 표시하도록 질문하였다. 각 부위의 선정은 기존 논문에 제시된 문항을 참고로 하였다.

피복비 지출에 대해서는 춘추용 외출복 정장구입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가격대를 질문하였고, 지난 봄 한 계절의 의복비를 질문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조사를 통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의복비 지출 가격대를 질문하여 그 범위내에서 구분하였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이화여대 가정과학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그들의 어머니, 할머니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가 1994년 7월 15일부터 가정에 우편으로 배달되었는데, 한 봉투에 세대별로 세개의 설문지가 동봉되어, 딸, 어머니, 할머니용의 설문지가 한 가정내에서 작성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핵가족화로 인해 조모와 동거하는 가정의 수가 적어 부득이 할머니 세대의 경우에는 친지나 이웃으로까지 범위를 확대시켰다. 약 20일에 걸쳐 반송된 142부의 설문지 중 불완전하거나 무성의한 36부를 제외한 106부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각 세대의 연령구분에서는 어머니의 경우 40세에서 59세까지를 중년으로 포함시켰고, 할머니세대는 60세 이상만을 포함시켰다.

3. 자료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AS package를 이용하였다. 세대별

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실시하였고, 세대별로 선호하는 디자인과 의복비 지출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x^2$ -test를 실시하였다. 세대별 의복의 맞음새에 대한 반응을 보기 위해서는 공분산분석을 하였으며, 세대와 선호스타일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세대별 가치관의 차이

세대별 가치관을 보면 정치적 가치관을 제외한 모든 가치관에 대해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딸 세대보다는 어머니나 할머니 세대가 더욱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사회적 가치관과 도덕적 가치관에서는 어머니 세대가 할머니 세대보다 중요시하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미미했다. 그 외에 경제적 가치관과 가정적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에서는 할머니 세대가 어머니 세대보다 훨씬 더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후기에 속한 딸 세대의 경우 현재 가치관을 정립해가는 과정중에 있고, 실제 생활을 담당하지는 않으므로 다른 세대에 비해 모든 가치관에 관심을 덜 두는 것으로 추측하게 한다.

<표 1> 세대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가치관	세 대	딸 세대 (n=106)	어머니 세대 (n=106)	할머니 세대 (n=101)	평 균	F
사회적가치관	평 균 집단구분	2.14 A	1.84 B	1.85 B	1.94	10.37***
정치적가치관	평 균 집단구분	1.77 A	1.67 A	1.73 A	1.72	1.72
경제적가치관	평 균 집단구분	2.51 A	2.03 B	1.86 C	2.13	52.12***
가정적가치관	평 균 집단구분	2.92 A	2.25 B	2.03 C	2.40	67.97***
도덕적가치관	평 균 집단구분	2.58 A	2.27 B	2.31 B	2.38	7.14***
종교적가치관	평 균 집단구분	3.17 A	2.71 B	2.49 C	2.79	32.12***

평균 점수가 낮을수록 성향이 강한것임  
\*\*\* p<.001

## 2. 세대별 의복행동의 차이

### 1) 세대별 선호하는 디자인

디자인 측면에서의 세대별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스타일, 실루엣, 스커트 길이, 니크라인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1) 세대별 선호하는 의복 스타일

의복 스타일에 따라 세대별로 선호하는 종류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딸세대에서는 패셔너블/트렌디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에서는 클래식/보수적 스타일에 대한 선호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딸 세대의 경우 두번째로 선호하는 클래식/보수적 스타일과 패셔너블/트렌디 스타일의 선호도가 근소한 차이만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세대에 무관하게 클래식/보수적 스타일이 선호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의 경우 두번째로 선호하는 스타일은 페미닌/엘레전트한 스타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은 20대의 경우 스포티한 스타일을 선호하고 중년층으로 가면 곡선적이고 드레시한 스타일을 선호한다는 연구결과<sup>32)</sup>와 부분적으로만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딸 세대의 경우 개성을 존중하며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신세대의 행동양식이 반영됨과 동시에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인 인정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유행을 추종하는 의

복을 선호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중년층의 경우도 이전 연구시기에 비해 스포티/캐주얼 스타일의 선호가 높은 것은 사고와 생활양식의 방향이 활동지향적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표 2).

#### (2) 세대별 선호하는 실루엣

세대별로 선호하는 스타일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딸 세대에서는 X-line을 선호하는 반면,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는 공통적으로 H-line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딸 세대의 경우 X-line과 H-line의 선호가 근소한 차이를 보여주어서 세대와 무관하게 전반적으로는 H-line이 가장 선호되고 있었다. 이 결과는 대부분의 성인여성들이 H-line을 가장 선호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동시에 20대 여성의 경우 아우어 클래스스를 선호한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sup>33)</sup>.

이러한 결과는 딸 세대의 경우 현재 유행의 영향이 작용했을 것이며, 중년 이후의 세대에 있어서는 활동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도 신체 특성을 감추어줄 수 있는 스타일을 선호하여 나온 결과로 보인다.

#### (3) 선호하는 스커트 길이

세대별로 선호하는 스커트 길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데 딸 세대는 미니,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는 미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는 딸 세대에서는 미니, 할머니 세대에서는 미디의 선호도가 크게 두드러지는데 비해, 어머니 세대에서는 미디가 우세하

<표 2> 세대별 선호 스타일

세대 \ 스타일	클래식/ 보수적	패셔너블/ 트렌디	페미닌/ 엘레전트	스포츠/ 캐주얼	계
딸 세대	36	38	4	27	105
Row(%)	(34.29)	(36.19)	( 3.81)	(25.71)	(33.76)
Col(%)	(27.69)	(59.38)	( 6.06)	(52.94)	
어머니 세대	43	14	34	15	106
Row(%)	(40.57)	(13.21)	(32.08)	(14.15)	(34.08)
Col(%)	(33.08)	(21.87)	(51.52)	(29.41)	
할머니 세대	51	12	28	9	100
Row(%)	(51.00)	(12.00)	(28.00)	( 9.00)	(32.16)
Col(%)	(39.23)	(18.75)	(42.42)	(17.65)	
계	130	64	66	51	311
(%)	(41.80)	(20.58)	(21.22)	(16.40)	(100.00)

df=6  $\chi^2=54.56^{***}$

\*\*\* p < .001

&lt;표 3&gt; 세대별 선호하는 실루엣

세대 \ 실루엣	A line	H line	X line	계(%)
딸 세대	117	150	157	424
Row(%)	(27.59)	(35.38)	(37.03)	(34.11)
Col(%)	(37.14)	(25.64)	(45.77)	
어머니 세대	88	255	81	424
Row(%)	(20.75)	(60.14)	(19.10)	(34.11)
Col(%)	(27.94)	(43.59)	(23.62)	
할머니 세대	110	180	105	395
Row(%)	(27.85)	(45.57)	(26.58)	(31.78)
Col(%)	(34.92)	(30.77)	(30.61)	
계	315	585	343	1243
(%)	(25.34)	(47.06)	(27.59)	(100.00)

df=4                       $\chi^2=58.14^{***}$

\*\*\* p &lt; .001

기는 하지만 내츨릴에 대한 선호도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역시 딸 세대의 경우는 유행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의 경우 신체적 특성에 따른 결과로 추측된다(표 4).

#### (4) 세대별 선호하는 네크라인

딸 세대에서는 브이 네크라인을 가장 선호하였고,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는 라운드 네크라인을 가장 선호하였다. 두번째로는 딸 세대에서는 라운드 네크라인을, 그리고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는 브이 네크라인을 선호하였다.

#### 2) 세대별 의복치수와 맞음새

세대별로 착용하는 의복의 상의, 하의 치수 분포를 알아보았으며, 이에 대하여 세대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상의와 하의 치수 분포에 있어서 세대별로 모두 .001의 유의도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상의에 있어서 딸 세대는 55사이즈, 어머니 세대는 66사이즈, 할머니 세대는 77사이즈를 착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하의에 있어서도 상의 호수에 대한 응답과 동일한 분포를 보여주어서 세대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 큰 호수의 의복을 착용하였다. 이는 체형의 변화와 동시에 이튼적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들은 의복 착용시 넉넉한 것을 보다 선호한다는 사실과도 관련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서 상의나 하의의 각 항목에 대한 맞음새를 어떻게 느끼는지는 세대와 실제로 착용하고 있는 의복의 호수와도 어느 정도 관련된 것임을 추측하게 해주었다. 즉 같은 정도의 맞음새를 가진 의복에 대해서도 딸과 어머니는 그 느낌이 다를 것이고, 또 착용한 의복 호수에 따라서도 이러한 느낌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우선 호수가 맞음새에 대한 느낌에 주는 변화를 통제된 뒤 실제로 세대가 맞음새에 대한 느낌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어디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상의 허리둘레와 소매길이, 하의 허리둘레와 대퇴둘레, 하의 길이 등의 항목에서 각 세대별로 맞음새에 대한 느낌에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상의 가슴둘레에서만 착용하고 있는 호수에 따라 맞음새에 대한 느낌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길이나 둘레 항목중 부분적으로 세대에 따라 신체의 치수에 차이가 있음을 재확인시켜준 결과로 볼 수 있다. 단 상의 가슴둘레의 경우만은 세대보다 착용한 호수에 따라 맞음새에 대한 반응이 바뀌어서 개인차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의복 착용시 맞음새에 대해서는 세대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세대별 선호 스커트 길이

세대 \ 스커트길이	미니	내츄럴	미디	맥시	계 (%)
딸 세대	232	70	12	110	424
Row (%)	(54.72)	(16.51)	( 2.83)	(25.94)	( 34.28)
Col (%)	(93.93)	(27.78)	( 2.93)	(33.43)	
어머니 세대	10	146	177	91	424
Row (%)	( 2.36)	(34.43)	(41.75)	(21.46)	( 34.28)
Col (%)	( 4.05)	(57.94)	(43.28)	(27.66)	
할머니 세대	5	36	220	128	389
Row (%)	( 1.29)	( 9.25)	(56.56)	(32.90)	( 31.45)
Col (%)	( 2.02)	(14.29)	(53.79)	(38.91)	
계 (%)	247 (19.97)	252 (20.37)	409 (33.06)	329 (26.60)	1237 (100.00)
		df=6		$\chi^2=660.00^{***}$	

\*\*\* p < .001

<표 5> 세대별 선호하는 넥라인

세대 \ 넥라인	라운드 넥라인	브이 넥라인	스퀘어 넥라인	유 넥라인	계 (%)
딸 세대	33	56	9	8	106
Row (%)	(31.13)	(52.83)	(8.49)	(7.55)	(34.19)
Col (%)	(27.73)	(46.28)	(40.91)	(16.69)	
어머니 세대	51	33	2	20	106
Row (%)	(48.11)	(31.13)	(1.89)	(18.87)	(34.19)
Col (%)	(42.86)	(27.27)	(9.09)	(41.67)	
할머니 세대	35	32	11	20	98
Row (%)	(35.71)	(32.65)	(11.22)	(20.41)	(31.62)
Col (%)	(29.41)	(26.45)	(50.00)	(41.67)	
계 (%)	119 (38.39)	121 (39.03)	22 (7.10)	48 (15.48)	310 (100.00)
		df=6		$\chi^2=25.46^{***}$	

\*\*\* p < .001

3) 세대별 의복비 지출

세대별로 선호하는 정장 가격대, 한 계절의 의복비 지출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1) 세대별 선호 정장 가격대

세대별로 선호하는 춘추용 정장의 가격은 딸 세대와 할머니 세대에서는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였고, 어머

니 세대는 다소 높아 25만원에서 30만원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할머니 세대의 경우 10만원 미만의 가격대에 대해서도 다른 세대에 비해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할머니 세대의 소비 가격대가 낮은 것은 경제적 가치관이 높다는 점과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 세



<표 6> 세대와 호수가 맞음새에 미치는 효과

변인		df	SS	MS	F	
상	가슴둘레	세대	2	0.1398	0.0699	0.18
		호수	1	5.5821	5.5821	14.44***
의	허리둘레	세대	2	8.9787	4.4894	11.64***
		호수	1	0.8928	0.8928	2.31
	소매길이	세대	2	4.6227	2.3113	3.51*
		호수	1	1.3001	1.3001	1.97
하	허리둘레	세대	2	18.7950	9.3975	17.82***
		호수	1	0.1363	0.1363	0.26
의	대퇴둘레	세대	2	2.2491	1.1245	3.04*
		호수	1	1.1295	1.1295	3.06
	하의둘레	세대	2	3.7146	1.8573	3.20*
		호수	1	0.2104	0.2104	0.36

\* p < .05      \*\*\* p < .001

<표 7> 세대별 선호 정장 가격대

가격 세대	10만원 미만	10만~ 15만	15만~ 20만	20만~ 25만	25만~ 30만	30만~ 35만	35만~ 40만	40만~ 45만	45만~ 50만	50만원 이상	계 (%)
딸세대	7	13	37	13	25	2	5	1	1	1	105
Row(%)	( 6.67)	(12.38)	(35.24)	(12.38)	(23.81)	( 1.90)	( 4.76)	( 0.95)	( 0.95)	( 0.95)	(34.09)
Col(%)	(21.88)	(35.14)	(45.68)	(36.11)	(39.68)	(11.76)	(29.42)	(25.00)	( 7.69)	(12.50)	
어머니세대	6	7	22	15	24	10	6	3	8	3	104
Row(%)	( 5.77)	( 6.73)	(21.15)	(14.42)	(23.08)	( 9.62)	( 5.77)	( 2.88)	( 7.69)	( 2.88)	(34.77)
Col(%)	(18.75)	(18.92)	(27.16)	(41.67)	(38.09)	(58.82)	(35.29)	(75.00)	(61.54)	(37.50)	
할머니세대	19	17	22	8	14	5	6	0	4	4	99
Row(%)	(19.19)	(17.17)	(22.22)	( 8.08)	(14.14)	( 5.05)	( 6.06)	( 0.00)	( 4.04)	( 4.04)	(32.14)
Col(%)	(59.37)	(45.94)	(27.16)	(22.22)	(22.23)	(29.42)	(35.29)	( 0.00)	(30.77)	(50.00)	
계 (%)	32 (10.39)	17 (12.01)	81 (26.30)	36 (11.69)	63 (20.45)	17 ( 5.52)	17 ( 5.52)	4 ( 1.30)	13 ( 4.22)	8 ( 2.60)	308 (100.0)

df=18

$\chi^2=41.88^{***}$

\*\*\* p < .001

대의 경우 경제적 가치관이 높기는 하지만 실제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므로 다소 높은 가격대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7).

(2) 세대별 의복비 지출

세대별로 의복비 지출에 있어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 다(표 8).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의 의복비 지출을 분석한 결

과 지난 봄 한 계절 동안 딸세대에서는 10만원에서 30 만원 사이, 어머니 세대는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 할 머니 세대의 경우 10만원 미만을 지출했다는 응답이 가 장 많았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선호 장장의 가격대와 유사한 결과였다. 즉 어머니 세대의 지출이 가장 많았 고 다음이 딸 세대, 할머니 세대의 순이었다. 이렇게 할머니 세대가 고려하는 정장의 가격대가 낮고 의복비

지출이 적은 것은 경제적으로 수입이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와 동시에 사회활동이나 외출의 기회가 적어 의복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3. 가치관과 의복행동

세대와 선호하는 스타일에 따라 가치관에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았다(표 9-표 11). 세대별로 가치관에 차

이가 있다는 사실을 앞에서 논의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선호하는 스타일과 가치관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다.

세대와 스타일이 모두 가치관에 주효과를 미친 경우는 경제적 가치관, 가정적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이었다. 우선 페미닌/엘레гант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집단이 경제적 가치관과 가정적 가치관이 비교적 높았고, 패셔너블/트렌디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집단은 경제적 가치관과 종교적 가치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

<표 8> 세대별 의복비 지출

가격 세대	10만원 미만	10만~ 20만	20만~ 30만	30만~ 40만	40만~ 50만	50만~ 60만	60만~ 70만	70만~ 80만	80만~ 90만	90만원 이상	계 (%)
딸세대	9	22	22	13	15	4	7	3	3	6	104
Row(%)	( 8.65)	(21.15)	(21.15)	(12.50)	(14.42)	( 3.85)	( 6.73)	( 2.88)	( 2.88)	( 5.77)	(34.55)
Col(%)	(16.98)	(55.00)	(31.89)	(39.39)	(34.09)	(21.25)	(77.78)	(37.50)	(37.50)	(33.33)	
어머니세대	11	8	28	12	21	9	1	3	4	5	102
Row(%)	(10.78)	( 7.84)	(27.45)	(11.76)	(20.59)	( 8.82)	( 0.98)	( 2.94)	( 3.92)	( 4.90)	(33.89)
Col(%)	(20.75)	(20.00)	(40.58)	(36.36)	(47.73)	(47.37)	(11.11)	(37.50)	(50.00)	(27.78)	
할머니세대	33	10	19	8	8	6	1	2	1	7	99
Row(%)	(34.74)	(10.53)	(20.00)	( 8.42)	( 8.42)	( 6.32)	( 1.05)	( 2.11)	( 1.05)	( 7.37)	(32.14)
Col(%)	(62.27)	(25.00)	(27.53)	(24.25)	(18.18)	(31.58)	(11.11)	(25.00)	(12.50)	(38.89)	
계 (%)	53 (17.61)	40 (13.29)	62 (22.92)	33 (10.96)	44 (14.62)	19 ( 6.31)	9 ( 2.99)	8 ( 2.66)	8 ( 2.66)	18 ( 5.98)	301 (100.0)

df=18                       $\chi^2=50.59^{***}$

\*\*\* p<.001

<표 9> 세대와 선호스타일별 따른 경제적 가치관

세대 \ 스타일	클래식/ 보수적	패셔너블/ 트렌디	페미닌/ 엘레гант	스포티/ 캐주얼	평 균	집단구분
딸 세대	2.56	2.58	2.25	2.40	2.51	A
어머니 세대	2.04	2.17	1.99	2.00	2.03	B
할머니 세대	1.86	2.06	1.83	1.74	1.86	C
평 균	2.11	2.39	1.93	2.16		
집단 구분	B	A	C	B		

F 값

세 대	39.53***
스 타 일	10.27***
세 대 · 스타일	0.93

\*\*\* p<.001

<표 10> 세대와 선호스타일에 따른 가정적 가치관

세대 \ 스타일	클래식/ 보수적	패셔너블/ 트렌디	페미닌/ 엘레гант	스포티/ 캐주얼	평 균	집단구분
딸 세대	2.75	2.96	3.08	3.06	2.92	A
어머니 세대	2.19	2.36	2.23	2.36	2.25	B
할머니 세대	2.05	1.94	1.95	2.26	2.03	C
평 균	2.29	2.64	2.17	2.71		
집단 구분	B	A	B	A		
F 값						
세 대				48.56***		
스 타 일				13.88***		
세 대 · 스타일				0.56		

\*\*\* p < .001

<표 11> 세대와 선호스타일에 따른 종교적 가치관

세대 \ 스타일	클래식/ 보수적	패셔너블/ 트렌디	페미닌/ 엘레гант	스포티/ 캐주얼	평 균	집단구분
딸 세대	3.16	3.32	3.25	2.96	3.17	A
어머니 세대	2.64	2.69	2.75	2.82	2.71	B
할머니 세대	2.35	2.53	2.60	2.81	2.48	C
평 균	2.67	3.03	2.72	2.89		
집단 구분	B	A	B	AB		
F 값						
세 대				25.64***		
스 타 일				5.43***		
세 대 · 스타일				0.62		

\*\*\* p < .001    \*\* p < .01

포티/캐주얼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집단은 가정적 가치관이 비교적 낮았다. 또한 클래식/보수적 스타일을 선호하는 집단의 종교적 가치관이 비교적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패셔너블/트렌디 스타일의 선호시 경제적 가치관이 낮다는 것은 유행 추종시 소요되는 비용문제와 관련될 것이며, 종교적 가치관이 낮다는 점은 종교적 가치관이 높으면 의복관심이 낮아진다는 이론과 연결될 것이다. 또한 가정적 가치관은 여성스러움이 강조되는 페미닌/엘레гант한 스타일과 연결되고, 남성스

러움에 가까운 스포티/캐주얼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도 가치관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었으며, 이는 역으로 가치관에 따라 선호하는 스타일이 변화될 것임을 짐작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원변량분석 결과 정치적 가치관을 제외한 모든 가치관에서 세대가 주요효과를 미친 점으로 보아 선호하는 스타일보다는 세대가 가치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세대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가치관의 차이와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난 가치관의 항목은 정치적 가치관을 제외한 사회적 가치관, 경제적 가치관, 가정적 가치관, 도덕적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 등이었으며, 모든 가치관에 대해 딸보다 어머니나 할머니 세대가 더 중요시하고 있었다.

둘째, 세대별로 나타난 의복행동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선호하는 의복 스타일에 있어서 딸 세대는 패서너블/트렌디한 스타일을 선호하고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는 클래식/보수적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선호하는 실루엣에서 딸 세대는 X-line을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는 H-line을 선호하였다.

선호하는 스커트 길이에서 딸 세대는 미니를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는 미디를 선호하였다. 선호하는 넥라인에서 딸 세대는 브이넥라인을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는 라운드 넥라인을 선호하였다.

세대별로 착용하는 의복의 호수를 분석한 결과 상의와 하의 모두에서 딸 세대는 55사이즈, 어머니는 66 사이즈, 할머니는 77사이즈를 가장 많이 착용하여 세대간 유의차가 나타났다. 맞음새에 대한 반응에서 상의 허리둘레, 소매길이와 하의 허리둘레, 대퇴둘레, 하의길이는 세대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의 가슴둘레의 경우는 세대차이보다는 착용하는 호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세대별로 의복비 지출 측면에서는 선호하는 춘추용 정장가격으로 딸과 할머니가 15만원에서 20만원대를 선호하고, 어머니 세대는 25만원에서 30만원을 선호하였다. 또한 지난 3월에서 5월사이 소비한 의복비에서도 딸은 10만원에서 30만원, 어머니는 20만원에서 30만원, 할머니는 10만원 미만에 분포하여 세대간 차이를 보여주었다.

셋째, 세대와 선호하는 의복스타일에 따라 가치관의 차이를 동시에 분석한 결과, 세대는 정치적 가치관을 제외한 모든 가치관에 주효과를 미쳤고, 선호하는 스타일은 가정적, 경제적, 종교적 가치관에만 주효과를 미

쳤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세대간에는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그 의복행동에 반영되고 있었다. 결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심리적 측면과 신체적 측면에서 보아 세 세대중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는 비교적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선호하는 디자인이나 구성측면의 의복행동에 있어서도 역시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으나 단지 의복비를 지출한다는 측면에서는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어머니 세대의 지출이 많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활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할머니 세대의 지출은 비교적 적었다.

이렇게 볼 때 가정내에서 세대간에는 서로 다른 심리적, 신체적 차이 혹은 성장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한 가치관과 의복행동의 차이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딸 세대가 하는 의복행동에 대해 기성세대에서 불만이 있다면 그들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 가치관 차이의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딸 세대 역시 기성세대의 의견을 참고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자를 이화여대 가정과학대 재학생과 그 가족으로 제한시켰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결과를 전체 대학생이나 다른 계층으로 확대해석할 경우에는 주의를 기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황용연, 대학생의 가치관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익문사, p. 4, 1975.
- 2) 김경희, 여대생의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착용 동기와의 관계,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2.
- 3) 박용현, 태도와 가치관 교육, 배영사, p. 3, 1969.
- 4) 최순희, 박찬부, 여성의 의복형태에 대한 남녀별 반응과 가족 가치관과의 관계 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5(2), p. 44, 1981.
- 5) 윤진, 성인 노인 심리학, 중앙 적성 출판사, p. 25, 1985.
- 6) Erikson, Erik,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Y., Norton, 1963.
- 7) 김종서, 남정걸, 정지웅, 이용환, 평생교육의 체제와 사회교육의 실태,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논총, 82(7), 1982.
- 8) 이은영, 복식의장학, 수학사, 1987.

- 9) 윤진, Ibid.
- 10) 김재은, 한국 가족의 심리, 이대 출판부, p. 20, 1981.
- 11) 이은영, Ibid.
- 12) 류은정, 의복관여도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 13) 김혜정, 상표이미지의 전략적 포지셔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14) 박혜원, 여성기성복의 상표 이미지의 포지셔닝 전략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 15) E.B. Hurlock, *Developmental Psychology*, 4th ed., New Delhi: Tata McGraw-Hill Publishing Co.
- 16) 정희용, 노년기 여성의 자아지각과 의복관심과의 상관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 17) 이혜숙,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대전시내 노인학교를 중심으로,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 18) 이영륜,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 19) 이미경, 성인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자아개념의 관계성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 20) 윤희숙, 의복의 미의식에 대한 고찰-서울시내 성인여성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 21) 최승희, 성인여성의 자아실현과 의복디자인 선호도간의 상관관계 연구, 경상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22) 유인숙, 중년여성의 스커트에 관한 연구-40~55세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 23) 이선재, 한국여성의 가치관과 의복디자인 선호도와와의 상관성 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11(1), pp. 39-40, 1987.
- 24) 김일분, 노년층 여성의 의생활 의식에 관한 연구-대구시를 중심으로, 계명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 25) 이춘계, 노인의 의복, 대한 가정학회지, 20(4), 1982.
- 26) 김순구, 성인 및 노인집단의 인구통계적, 심리적 변인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3.
- 27) 유경숙, 노년층 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서울, 광주 거주자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 28) 이인자, 복식사회심리학, 수학사, 1987.
- 29) Creekmore, Anna Mary, "Clothing Behaviors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the Striving for Basic Needs," Ph.D. Thesi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63.
- 30) 안정자, 가치관과 의복선택색간의 상관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8.
- 31) 김경희, 여대생의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착용 동기와 의 관계: 서울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 32) 이미경, 성인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자아개념의 상관성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40-41, 1984.
- 33) 윤희숙, 의복의 미의식에 대한 고찰-서울시내 성인여성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32-33, 1986.